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상식인가” ‘파업 공감’ 집중투쟁에 15명 추가 참여



연합뉴스노조는 30일부터 사흘간 집중투쟁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박정찬 사장 출근 저지를 벌인 데 이어 이번에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

집중투쟁 기간 업무 복귀자를 비롯한 파업 미참여자 15명이 새롭게 투쟁 대오에 합류했다. 각자 어려운 여건에서 집중투쟁에 합류한 이들은 그동안 파업을 함께하진 못했지만 그것이 박 사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박사장 측은 집중투쟁의 기세를 막으

려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온갖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 이로 인해 투쟁 참여가 확실해 보였던 일부 인원이 막판에 참여의사를 철회하기도 했다.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투쟁에 합류한 편집국의 한 조합원은 “집중투쟁 참여는 사장에 대한 내 나름의 반항인 셈”이라며 “이렇게는 하지 마라. 당신도 하나 정도는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기회로 삼고 싶었다”고 참여배경을 설명했다.

박 사장은 이날 평소 출근시각보다 한 시간 가까이 늦은 오전 9시55분께 본사 7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근 저지 스크럼 앞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에게 조합원들은 “지각! 지각!”이라며 외쳤다. 스피커에선 양정우 맥시코시티 특파원이 파업 초기 노조로 보내온 육성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 사장은 입가에 묘한 웃음을 띠 채 아무말 없이 다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공병설 위원장은 이날 IT개발부 소속 공준욱 사수가 사내게시판에 올린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상식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언급하며 “조합원이 아닌데도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정확하게 담아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면서 이 글을 법원에 자료로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며 “연합뉴스의 민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이라는 점을 판사에게 똑똑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가처분신청과 관련, “법과 사유라는 이름으로 박 사장이 휘두르는 칼은 똑같이 법적 문제로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하기 전에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사태를 풀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와 상식’을 향한 일갈 “정의에 더 가까운 노조편에 서겠다”

노조 집중투쟁 기간 첫날인 30일 새벽, 사내게시판에 연합뉴스 사수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글 한 편이 올라왔다. 상식도, 정의도 통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비판을 담은 글이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상식입니까’라는 제목이 란 이 글을 쓴 이는 지난해 말 입사한 IT개발부의 공준욱 사수.

공 사수는 조합원도 아니고 계약직이란 불안정한 신분임에도 현 파업 사태를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정직하게 할 말을 다 했다.

그는 이 글에서 “언론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

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서가 아닌가”라며 일부 간부급 사원들이 단지 파업을 빨리 풀고자 정의와 상식, 동료 간 신의까지 저버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일갈했다.

이어 노조의 파업 이유에 대해 가타부타할 정도로 회사 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자 집중투쟁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결정한 것은 파업 기간 노사 양측이 보인 행보를 보고선 노조가 조금이나마 정의에 더 가깝다고 나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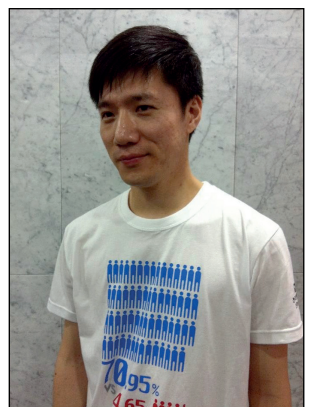
공 사수의 솔직하면서도 용기 있는 글은 그 울림

이 컸다.

그의 글에 대한 클릭 수가 순식간에 1천300건을 넘어섰다. 또 IT 운영부 이석규 조합원이 “후배님의 판단과 용기에 무한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라는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해 많은 조합원들이 전화 혹은 문자로 공 사수에게 지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휴가원을 내고 오후 파업 현장에서 찾은 공 사

수



‘34년 통신맨’ 사장, 직원을 법정에 세우다

노조위원장 가처분사건 심문 출석

‘34년 통신맨’임을 자임하던 박정찬 사장이 기어코 자신의 후배이자 직원을 법정에 세웠다.

공병설 연합뉴스 노조 위원장은 3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358호실에 출두했다. 박 사장이 노조와 노조위원장,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징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심문 변론을 위해서다.

공 위원장이 법정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게 된 배경엔 박 사장의 ‘꼼수’가 작용하기도 했다. 애초 박 사장은 노조와 쟁대위원, 대의원 등 58명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서류를 받은 노조와 노조위원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신청을 취하했다. 법원 서류가 피신청인 모두에게 송

달돼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는 점을 노리고 사건을 빨리 진행하게 하려고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박 사장 측은 앞서 3차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사규에 따른 엄중한 징계뿐 아니라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고소 등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오늘은 연합

뉴스에서 역사적인 날이자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사장이 직원을 법정에 서게 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공 위원장은 “우리는 회사를 조용히 안정시켜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많이 참여했다”며 “박 사장은 법의 이름으로 휘두른 칼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1면에 이어

우는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고서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이대로 노조가 지고 파업이 끝나면 ‘나 이런 회사에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간부도, 정규직 사원도 아닌 내가 이런 글을 올리고 파업에 동참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나 스스로 만들어낸 핑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사장실 앞 집회든, 텐트 당번이든 참여해 노조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글을 올리고서 얼굴도 못 뵈는 여러 선배들의 격려 문자와 전화를 받으며 저 역시 힘을 얻었다”면서 “그간 제작·비제작부서 사원들 간 교류가 뜸해 ‘보이지 않는 벽’같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파업 기간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 더욱 끈끈한 선·후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집중투쟁 합류 조합원들

“노조 투쟁방향 지지”

30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집중투쟁 기간에 합류한 고참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후배들에게 투쟁 대오에 함께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노조의 파업 투쟁 승리를 기원했다.

지방취재본부의 한 조합원은 “선배라고 단 며칠 만이라도 제한적으로라도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고맙다”며 “정말 끝까지 막말로 머리 터지게 같이 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와있는 선배한테 이것만이라도 참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고맙다”고 연방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후배들을 남기고 개인 사정상 업무에 복귀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밝히면서 “노조가 가는 방향이 그르다고 생각하거나 사장이 좋다고 해서 복귀한

것은 아니다”며 노조와 뜻을 같이함을 명확히 했다.

또 다른 지방본부의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못해도 노조가 이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휴가를 냈다”며 “후배들이 계속 남아 무보수로 투쟁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고 후배들을 걱정했다.

다른 고참 지방 조합원은 “늘 사무실에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며 그간 마음고생을 털어놓으면서 “집중투쟁 기간이나마 노조에 힘을 보태주고 싶다”고 노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편집국의 한 조합원은 “노조 파업의 대의명분과 뜻을 애초부터 지지했으나 사정상 복귀했다”며 “무엇 때문에 파업하는지 잘 알고 있고, 마지막까지 슬기롭게 잘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합원 신혼기

박진형 조합원(국제뉴스4부) 부인 최성순 씨

8년 전, 나와 마찬가지로 게임업계 홍보 일을 하던 고등학교 친구가 출입기사를 소개해준다고 같이 만난 것이 그와의 첫 만남이었다. 친구는 “말수도 거의 없고 아주 특이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만나보니 의외로 이상하지 않아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

이후 메신저로 자주 얘기했다. 처음에는 일 얘기만 했지만, 정치 성향이 나 영화, 음악 등 여러 취향이 비슷해서 나중엔 편한 마음에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그 때 한창 혈액형에 따른 성격 얘기가 유행이라 그에게도 “박 기자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그의 대답은 이랬다.

“혈액형 믿으면 지상렬(못난 사람이라는 뜻).”

순간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지만, 사실 나도 혈액형으로 성격을 판단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느끼면서도 주변에서 다들 그렇다고 해서 따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들 말에 좌우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의 소신 있는 모습에 처음으로 호감을 느꼈던 것 같다.

이후 그가 부서를 옮겨서 업무상 볼 일은 없어졌지만, 메신저등으로 계속 대화하고 아주 간혹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다. 그렇게 수년을 별일 없이 지나다 재작년께 서로 소개팅을 시켜주는 얘기가 나와서 그와 친한 사람을 소개 받았다.

상대는 그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었다.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문득 그와 얘기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깨달았다.

다행히 소개팅 상대는 내게 마음이 없었다. 그에게 전화해 고백했다. “나 자신도 몰랐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그도 실은 내게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고, 그래서 사귀게 됐다.

1년 넘게 만나다 보니 그와 나는 성격이 정반대였다. 나는 급하고 충동적

인 편인 반면, 그는 느리고 둘다리도 천 번 두드려보는 스타일이다. 특히 내가 흥분해서 두서없이 말할 때 그는 항상 웃으면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차분하게 정리해준다. 그런 차이 때문에 오히려 환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서 결혼하기로 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단 한 번 싸웠다. 그가 살고 싶어하는 마포가 내 직장 과 먼 것 같아서 다른 곳도 알아봤는데 그가 듣지 않아서 다행이다.

결국 마포에서 신혼집을 꾸미면서 이 곳을 좋아하게 됐다. 유흥업소라고는 노래방 1개, PC방 2개가 전부일 정도로 조용한 주택가이다. 사람 사는 동네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든다.

이제 결혼한 지 두 달 가까이 됐다. 내 기대대로 그는 착하다. 집에 책이 참 많은데, 그가 책을 읽는다는 거 등등 온종일 뒀가에 몰두해 있는 모습이 멋있다.



내 집을 예쁘게 꾸미고 요리를 하는 것도 재미있다.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이고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무 행복하다.

자기야. 내 남편이 돼줘서 고마워. 못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자길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물어본 적 있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도움이 될까 고민된다.” 자기는 농담처럼 대답했지만, 그 말에 이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요. 자기의신념도계속지켜나가길바라요. 사랑해.